

<돈키호테>를 통해 바라본 시대정신과 영웅 세르반테스

2017***** 문화콘텐츠학과 김민지

1. 들어가며

오늘날 돈키호테는 일반적으로 광증에 가까운 망상을 하는, 엉뚱한 인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인다.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들으면 언제나 영국 록 음악계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피트 도허티가 떠오른다. 그는 자신이 ‘앨비언’이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아르카디아’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선원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아르카디아는 고대부터 시인들이 목가적 이상향으로 칭송하며 시를 바치던 곳이다. 앨비언은 그의 모국인 영국이 지닌 가장 오래된 이름이다. 엄숙하게 사건을 덧붙이건대 이런 류의 낭만성은 페트라르카의 동시대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니 도허티가 마약을 통해 현실 도피를 시도했던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누군가 어째서 그토록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느냐고 도허티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방어라고.

“스스로 무엇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데요?”

“현실.”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도허티는 이후 십 년도 더 되는 세월 동안 황색언론의 조롱거리로 살아가야 했다. 런던이 처음 그의 밴드인 리버틴즈를 보았을 때는, 이 시대의 비틀즈라고 여겼음에도 그가 비틀즈처럼 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다. 저널리스트 배리 니콜슨은 이렇게 평했다.

“리버틴즈라는 록 밴드는 가장 영국적인 현상이었다. 영광스럽게 실패했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심하게 엇갈리지만, 도허티 이후로 더는 전형적인 록스타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람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시인을 자처한 그의 광기와 고독, 자유와 방종이 뒤섞인 행보와 낭만성을 띤 가사들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 의미 모두에서 록스타 그 자체였다. 도허티는 실로 로큰롤이라는 장르 자체가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방향성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한 마리 십자매와도 같았다. 바로 그 점에서 그는 너무나 돈키호테적이었고, 따라서 앞서 나온 문장을 이렇게 비틀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가장 스페인적인 현상이었다. 영광스럽게 실패했으니까.”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자신의 이상에 걸맞는 시기보다 수백 년은 늦게 태어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 자체마저 단지 기사 소설의 재기 넘치는 패러디에 불과하고 현대에 와서는 한없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꿈광내나는 작품이라고 여길 것은 아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 시대의 요구를 향해

통찰하고 있었던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앞으로 무한히 올 시대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경향에 대해서도 통찰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손에 넣을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한 필사적인 외면, 이것이 과연 우리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

일찍이 헤겔은 “영웅이란 자기 내부로부터 뭔가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말하며, 그 행위가 그의 것, 그의 소산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사태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선각자적 영웅들은 개인의 무의식적 내면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존재이다. 헤겔은 지적한다, “세계정신 사업을 담당한다는 사명을 지닌 이들 세계사적 개인의 운명을 주목할 때 그것은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생애는 악전고투였고, 내면은 오직 정열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현실과 세르반테스의 삶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정신-환멸-과 그것을 통찰한 세르반테스의 삶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2. 기사 문학 패러디로서 <돈키호테>의 시대성 탐구

2-1. 중세 유럽 기사도 문학의 성행 배경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서 술하게 언급되고 패러디되는 기사 소설들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훌륭한 기사가 무어인이나 터키인들과 같은 이교도 세력을 몰아내고 위기에 빠진 기독교 세계를 구해내는 것이었다. 당시 이런 내용이 어째서 인기를 끌었는가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세 유럽의 상황 상 소설 속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이 ‘우리의 바다’라고 부르던 지중해는 이슬람교도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고 이베리아와 시칠리아는 몇 세기 동안이나 이들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슬람 세계는 군사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팽창하고 팽창했다. 세계 최초의 대학교는 이슬람교도들의 손에 세워졌다. 이슬람세계는 이집트, 그리스, 인도 등지에 흩어져 있던 장서들을 수집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유럽은 이슬람교도들의 번역서를 다시 번역하는 역수입 과정을 거쳐 과거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유산을 조금씩 모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세 유럽이 훨씬 더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중세 유럽인이 스스로 이런 후진성을 인식한 계기는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십자군 원정이다. 유럽인들은 성지를 되찾는 것이 기독교도의 의무라는 순박하기까지 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대규모 원정을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성지를 탈환하지도 못했고, 이슬람 세계의 선진적 문명을 접하며 극도의 충격과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상처뿐인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 중세 유럽 사회는 지각변동에 비유할만한 격변을 겪었다. 교황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왕권은 강화되었다. 무수한 봉건 귀족들이 전사로 인해 장원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바로 이때가 기사 계층이 현실의 지배계층에서 시대착오적 소설 속 존재들로 전환된 시점이다.

기사 문학은 역설적이게도 현실의 기사 계층이 몰락한 후 더욱 유행하였다. 이것은 기사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중세인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시사하고 있다. 상류층과 문인들에게 후원받으며 성장해온 궁정 문학이기도 했던 기사 문학은 세르반테스의 시대에 이르자 인쇄술의 발명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보급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2-2. 집필 당시 스페인의 현실

16세기의 스페인은 개신교 국가와 이슬람 세력 등과의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카를로스 1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영토를 상실했고 지중해 재해권을 두고 오스만 튀르크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펠리페 2세가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그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도 물려받게 되었다. 그는 재정 파탄의 위기를 조세를 더욱 높게 걷는 것으로 모면하려고 했으나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때의 스페인은 최고의 왕권과 신대륙으로부터 유입되는 금으로 인해 소위 황금시대로 불리는 찬란한 시기를 누리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실 스페인은 흑사병의 유행과 종교재판으로 극도로 혼란스럽고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타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영토 상실과 군사력 약화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펠리페 2세의 가톨릭 신앙은 매우 투철했다. 펠리페 2세는 전 유럽을 가톨릭적 질서 아래에 재편성하고자 하는 편집증적 야망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무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는 영국을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명분으로 칼레 해전을 벌이나 대패했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그 명성이 퇴색하게 되었다. 가톨릭의 수호를 향한 대외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펠리페 2세는 대내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정책을 진행했다.

이전까지 무슬림과 유대인들을 주로 심문했던 종교 재판소는 개신교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다. 개신교도로 의심되는 자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당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으로 인한 희생양은 가장 적게 잡은 기록에서 삼십 만명, 가장 크게 잡은 기록에서는 이백만 명에 육박한다. 또한 이 무렵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금서목록이 탄생했다. 종교 재판소는 개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인쇄물은 철두철미하게 검열된 후에 출판을 허용했다. <돈키호테>의 초판본의 표지 문안에도 존재하는, 왕의 이름하에 발급된 특허장은 당시 모든 인쇄물이 검열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학문을 위시한 지적 활동은 극히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어 위축되었으므로, 기사 소설이나 그 아류작 따위가 오락거리로 더욱 왕성히 읽힌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돈키호테>는 그러한 장르에 속한 한 작품인 양 시대를 향한 불손한 고발을 시도한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스페인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세르반테스의 모국은 점점 강성해지는 외부의 세력에서 눈을 돌린 채, 내부에 존재하는 '이단'과 '이교도'를 불태웠다. 스페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던 자신이 신봉하는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역설적이게도 스페인에서는 시대착오가 가장 큰 시대성이었던 것이다. 이달고, 즉 귀족으로서의 자부심만 남아있는 영락한 하급 귀족인 늙고 초라한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세상을 누비며 정의를 지키겠노라 외친다. 이 모습에 무너져가는 스페인 제국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3. 세르반테스의 삶을 통한 돈키호테의 캐릭터 탐구

세르반테스는 정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할 정도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음에도 위대함에 대한 열망을 품었다. 16세기의 스페인은 신대륙 식민지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엄청난 양의 금이 신대륙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스페인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지역 출신이었던 피사로의 성공은 같은 처지의 많은 이들을 고무시켰다. 모험심이 있고 출세를 원하는 가난한 청년의 꿈이 더는 마냥 비웃음당하지않은 않았다. 세르반테스 역시 야망을 품고 레판토 해전에 참전했다. 세르반테스는 이교도를 몰아내고 무훈을 세우는 '십자군적 환상'에 경도

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차서, 전투 당일날 열병을 앓으면서도 지휘관 노릇을 했다.

그러나 레판토 해전에서 스페인 함대는 사실상 칭송받을만한 행적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 펠리페 2세는 교황의 요청을 받아 군대를 파견하기는 했지만 이교도를 격파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부왕이 오스만 튀르크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지휘관에게 교전을 피할 것을 지시했다.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스페인 함대의 파행은 종전 후 맹렬하게 비난받게 되었다. 공명심에 차 있었던 세르반테스와 달리 그의 조국은 레판토 해전에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았고, 온 유럽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레판토 해전 이후 세르반테스는 자진해서 튀니지 전쟁에도 참전했으며, 알제리에서 5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겪고 간신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조국은 그를 어떤 영웅으로도 대우해주지 않았다. 세르반테스는 명예로운 칭호 대신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이었다. “오른팔로 명예를 떨치기 위해 왼팔은 평생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던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갈망했던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없으리라는 사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당대 사회를 풍자적으로 묘사하나, 그의 시선은 어느 순간에도 결코 완전히 냉소적이지 않다. <돈키호테>에는 환멸 어린 세르반테스 자신의 슬픈 모습이 가장 짙게 배어있다.

시골의 하급귀족으로 태어난 돈키호테에게 시대는 아무런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가 방랑기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꾸는 꿈일 것이며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게 될 족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허황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모험을 떠난 돈키호테를 향한 세상은 잔인하기만 하다. 성도, 영주도, 기사도, 귀부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가? 사실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어느 영광의 흔적이다. 돈키호테가 끊임없이 인용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십자군적 영광을 안은 기사들의 이야기이 그러하듯이, 그것들은 공통적으로 유럽이 지금보다 더 위대했고 자긍심에 차 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현실의 유럽은 비천하고 쇠락하고, 열등감에 차 있다.

돈키호테는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수모를 겪지만 그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이 아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고결한 기사의 혼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더는 기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풍차를 거인으로 믿고 돌진하는 장면이 그토록 작품 전체를 통틀어 인상깊은 이유는,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의 상황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신화와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 인간 존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날 것뿐인 삶은 과연 무엇으로 치장해야 하는가? 그가 진정으로 싸우는 대상은 그러한 문제들이다. 그의 실존적 성질에서 우러나온, 광기에 찬 몸부림은 끊임없이 작중인물들에게 조소당한다. 이 때문에 작가가 주인공을 어디까지나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쓴 것처럼 여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르반테스는 곳곳에서 돈키호테가 아주 조리 있고 이성적인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면 누가 제정신일 수 있겠소? 너무 똑바른 정신을 가진 것이 미친 짓이요!”라는 절규에 이르면 아예 조소하는 대상은 전도되고 만다.

<돈키호테>의 끝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돈키호테는 결국 전투에서 패하고 좌절하며, 병들어 죽게 된다. 임종의 자리에서 돈키호테는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껏 좇던 꿈이

전부 엉터리이고 사기라는 유언을 남긴다. 단순히 독자를 웃기기 위해 쓴 풍자 소설이라면 어째서 이런 식으로 끝을 내야 했는가? 어째서 이 죽음이 이토록 비장하고 침통한가?

돈키호테의 죽음은 위대함을 열망한 인간이 뻔은 손을 세상이 최종적으로 뿌리치는 대목이다. 미쳤던 돈키호테는 두들겨 맞고, 귀가 찢기고, 이빨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뭉개지는 한이 있어도 “불쌍한 몰골의 방랑기사”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부여한 고상하고 심오한 관념들이 실은 완전한 허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돈키호테는 한낱 힘없는 노인이 되어 죽게 된다. 돈키호테의 가장 큰 불행이 광기가 아닌 제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거대한 역설을 통해 세르반테스는 이 작품에 가볍게 웃을 수 없는 무게감을 부여한다.

4. 나오며

나는 얼마전 피트 도허티가 재활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젊다 못해 앓던 얼굴로 유명했던 그가 마약을 하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한탄한 순간, 갑자기 나이보다 더 빨리 반백이 된 한갓 초라한 남자로 보이게 된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마약에 가장 찌들어있을 때조차 지니고 있던 기묘한 아우라가 사라져버렸다. 환상의 기만적인 속성이다.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깨어난 순간 삶의 비천함에 얻어맞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허티가 써붙인 가사는 그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삶이란 정말 근사해질 수 있어. 팬찮아질 거야.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조차 인생의 여정이니까.”

그의 ‘돈키호테 졸업’은 박수쳐줄만한 일이다. 물론 환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은 매력적이며 일말의 위대성마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의가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 환상과 현실, 그 사이에 놓인 인간 존재를 아주 정직하게 보여준다.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서도 환상을 품을 수 있음을, 또 환멸에 부딪힌다고 해서 이상을 가졌었다는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음을, 심지어 그 좌절감이 환상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세르반테스가 이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돈키호테는 꿈에서 깨어나자 죽었다. 그러나 현실의 세르반테스는 전쟁에 나가 출세하겠다는 꿈이 물거품이 된 다음에도 곳곳이 살았다. 그의 좌절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문학 작품이자 스페인 문학에 길이 빛나는 명작 <돈키호테>를 쓰는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돈키호테>를 통해 세르반테스의 삶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꿈에는 아무런 선물이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꿈꾸는 삶 자체는 인류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돈키호테처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가장 슬프고 힘겨운 순간을 보내면서도 <돈키호테>를 구상한 세르반테스처럼 꿈을 꾸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이 꾸었던 꿈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돈키호테처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한쪽 팔을 앓아갔어도 다른쪽 팔로 펜을 들고 대작을 써내려갔던 세르반테스처럼 꿈을 꾸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환멸의 위협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으로써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헤겔, 역사 철학 강의. 동서문화사. 2016.

움베르토 에코, 중세 1. 시공사. 2015.

김 매쿼리, 잉카 최후의 날. 옥당. 2010.